

함께 보고 함께 대화하기...방구석 '랜선' 모임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취미생활과 모임 등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친구, 지인과의 만남보다는 집에서 홀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취미활동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 인원의 제약이 없는 '랜선' 모임을 통해 책, 영화 등을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는 이들이 늘고 있다.

랜선 모임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매개로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모임을 하는 것이다.

북카페 손탁앤아이서는 7~10월 계획한 '소설가 이지와 함께하는 독서모임-소설에서 만나는 질병의 풍경' 중 7월 모임(16:30일)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모임은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이 주제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설을 통해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페스트', '개인적인 체험', '발작', '정신 병동 이야기' 등을 매개로 전염병 뿐 아니라 개인에게 다가가는 각종 질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드



lovenfree_book : maybooks_05님의 172명이 좋아합니다
lovenfree_book "함께 읽어요" 온라인 독서 모임 '침묵의 땀방울' 모집중입니다.
#러브앤프리 #독서모임 #온라인독서모임 댓글 3개 모두 보기

시간·장소 제약 없이 독서·영화 모임 '소설가 이지와 함께하는 독서'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온라인 진행 책방 러브앤프리 '침묵의 땀방울' 운영

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변모하는지 탐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생의 배일', '눈먼 자들의 도시', '제5도살장', '한국소설 속에 나타난 병' 등도 다룬다.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온라인 모임 '침묵의 땀방울'을 운영중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임 이름처럼 말 없이 오직 이미지로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날 읽은 책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필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대화방에 올리거나 책을 읽고난 후의 느낌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된다.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모임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던 모임을 온라인(zoom 화상회의)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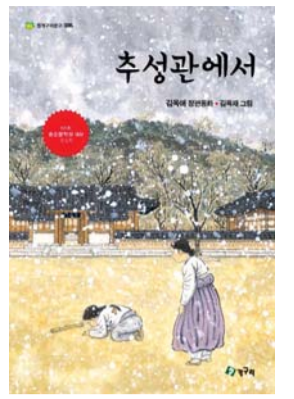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에 맞게 선정된 영화는 나이트 사말란 감독의 '빌리지'다. 영화는 19세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코빙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바이러스(질병)의 공포와 그에 따른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가 특징이다.

2018년 8월 시작한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는 영화를 통해 인문학을 읽으며 우리 사회에 얽혀 있는 불안, 아픔, 무기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다. 최근까지 '사이코패스와 범죄', '우리로 사랑일까', '합리적 의심', '차이와 혐오', '인간 내면의 고통'을 주제로 약 25회의 모임을 열었다.

문학전문서점 검은책방원책방이 진행하는 '책'을 보다 영화를 읽다-책과 영화가 만나는 미니멀리즘 영화제'도 온라인으로 열린다. 영화제는 원작인 문학작품과 영화를 함께 읽고 보며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은책방원책방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서 만날 수 있다.

17일에는 영화 '판도라', 책 '체르노빌의 아이들'을 텍스트로 하며 이후 '폭풍의 언덕'(24일), '체실비치에서'(31일)도 다룬다.

/전문계 기자 ej621@kwangju.co.kr



의병이 된 민초들 이야기

김옥에 동화작가 '추성관에서' 출간 제 6회 '송순문학상' 대상 수상작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뭉클하다. 임진왜란은 아동문학에서도 자주 다뤄졌던 소재지만 당시의 병란에 대한 창작화는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다. 위인 중심의 역사 교육 탓도 있지만 아동서사 또한 영웅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스스로 의병이 된 민초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동화로 출간됐다.

김옥에 동화작가의 '추성관에서' (청개구리)는 의병이 된 아버지와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6회 송순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작품은 전남 의병의 집결지였던 담양 추성관을 배경으로 백성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제6회 송순문학상 심사위원회는 "민중들이 의병에 가담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의병의 이야기를 영웅의 관점이 아닌 민중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동화는 역사적 사실 위에 스토리를 덧입혀 전개된다. 주인공은 창평현의 영원 마을 대장장이 이노당과 그의 가족들이다.

때는 1592년 4월. 부산을 침범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와 한양을 점령하고 선조는 개성에서 평양으로 피난을 다닌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노당 가족들도 불안에 휩싸인다. 이때 담양 관아객사인 추성관에서 의병들이 모여 결의를 다진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이노당은 서영대 노인으로부 터 의병들이 무기로 쓸 칼과 낫, 곡괭이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작품에서는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외에도 의병이 되기까지의 고뇌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도 밀도 있게 그려진다.

김 작가는 "의병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 목숨을 던진 이들"이라며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어린이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싸웠던 의병들에 대해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출신 김 작가는 75년 전남일보(옛 광주일보 전신) 신춘문예와 7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에 당선됐으며 '들고양이 노이', '별이 된 도깨비 누나', '봉낭 손님의 선물' 등 작품집을 펴냈고 한국아동문학상, 소천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19'로 바뀐 삶 아카이빙하다



성혜림 작 '또 다른 일상'

광주시립미술관, 31일까지 온라인전시

'또 다른 일상, 그림으로 기억하기'

김자이·박수만·류현자 등 20명 참여

코로나 19는 평범했던 우리 삶을 순식간에 바꿔 놓았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지역 작가들을 초청,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풍경을 기억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전시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작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기획이기도 하다. 당초 온-오프라인 동시 전시를 기획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만을



김선희 작 '그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코로나 19 아카이빙-또 다른 일상, 그림으로 기억하기'로 30~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참여작가는 김자이·박수만·임용현·임남진·장

용림·류현자·박수만·배일선·성혜림·송영하·양홍길·정성섭 등 모두 20명이다.

노은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삶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진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를 깊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비폭력주의의 '간디 이야기'

쇼바나 박사 오늘 온라인 강연

비폭력주의를 주창했던 인도 지도자 간디에 대한 강연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주한인도문화원은 간디 철학 강연자이자 간디안 포럼을 이끌고 있는 쇼바나 라다크리슈나 박사의 '간디 이야기' 강연을 15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아시아문화원과 주한 인도문화원의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초 양 기관은 인적교류 차원에서 상호 초청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좌로 변경했다.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인한 위기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필요성: 간디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현지를 연결해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영어로 제공된다.

신청은 <https://forms.gle/3iRE9bLisucFsoXQA> 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행사 전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참가 가능한 줌(Zoom) 링크를 통해 시작 10분 전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그동안 주한 인도대사관 및 주한 인도문화원과 함께 인도사랑축제, 인도영화제, 인도그림책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인도 공화국의 날 기념 특별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보호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